봉은사, 미륵대불 불사 22년 만에 재개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성도절 앞두고 용화정토 원불 봉안불사 시작


봉은사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봉안불사 조감도. 미륵대불 뒷편이 원불 봉안 장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가 용화정토 불사를 완성하기 위해 나섰다. 불사 시작 22년 만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최근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봉안 불사 모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에서 미륵불은 도설천에서 교화 후 세상에 나툴 때 용화수 아래로 내려와 용화정토는 미륵불 세상을 의미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미륵대불 용화정토 불사는 봉은사의 상징인 미륵대불 뒤편에 미륵원불 3999위와 미륵가족불 22위, 보살입상 23위, 금강역사 2위 등을 봉안하는 대작불사다.

봉은사 경내 모든 전각을 한눈에 내려다 보는 자리에 위치한 미륵대불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미륵대불을 봉안하자"는 영암스님의 의지로 불사가 시작됐다.

1986년 11월 봉은사 사부대중은 미륵대불 봉안불사를 발원하며 3000배 철야정진을 거행했으며, 1991년부터 1994년까지 1000일 기도가 진행됐으며, 밀운, 대운, 성문 스님을 거쳐 1996년 1월 27일 성도절을 앞두고 무상 스님 주지 재임시 10년 만에 점안식을 가지며 봉안한 바 있다.

12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봉은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지리적 중요성에도 오래전부터 국내외 방문객들과 신도들을 위한 신행공간이 부족해 불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봉은사는 추가단계로 미륵대불 봉안 이후 미륵대불 주위 벽면을 불사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20년 넘게 방치되며 전각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콘크리트 울타리로만 남아 있었다.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봉안 불사는 불자대중이 1000일 기도로 100일 씩 10차례로 나눠 약 3년에 걸쳐 진행된다. 봉은사는 지난해 10월 15일 미륵대불 원불 불사 원만성취 1000일 기도를 입재해 2020년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 1차 기도는 1월 22일 회향하며, 2차 기도는 1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02)3218-4801~6

1996년 대불 봉안, 후속 불사
가족불 등 다양한 불상 봉안
원불 3999위 신청 접수 중
1월 23일부터 2차기도 입재

"용화정토 불사, 미래불교 터전"

Interview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미륵대불 불사는 봉은사 신도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역대 주지 스님들의 노력과 대중들의 뜻을 한 마음으로 모아 미륵대불 불사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봉은사 미륵대불 용화정토 원불 봉안 불사를 시작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이번 불사 재개가 22년의 불자대중의 간절한 원력이 모인 결과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 불사에는 특히 가족이 함께 찾는 봉은사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미륵가족불 등이 도입됐다.

원명 스님은 "현재 가장 큰 전각인 법왕루조차 3000명에 달하는 법회 참석 인원을 500명 밖에 소화하지 못해 나머지 인원이 경내 곳곳에서 법회를 보는 등 신도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사찰에 와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찰을 꾸며가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원명 스님은 봉은사는 선종수사찰이면서도 관음 · 미륵신앙 등 다양한 신앙이 함께하는 종합 기도수행도량이라며 대표 기도수행도량으로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현대인들의 개인화되는 신행 · 수행활동을 사찰에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 불교를 담보할 미륵대불 용화정토 불사에 불자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국대일산병원 임단협 체결

동국대일산병원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간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이진호)은 구랍 22일, 본원 4층 회의실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6월 2일 노조가 설립된 이후, 6개월 여간 근로여건 개선 등 노조 측 요구안을 놓고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12월 14일 임금인상과 87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임금 인상안과 단체협약 87개 조항 중 △금임금인상(약4%) 외 연봉 1% 추가인상 △일부 직급 승진제도 개선 △단계별 인력 충원 △육아휴직수당 신설 등을 결정했다.

이진호 동국대일산병원 병원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새벽별 보며 깨달은 부처님처럼…

전국 사찰들 성도재일 맞아 정진

오는 1월 24일(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도재일이다. 성도재일은 한국에서 행해지는 4대 불교명절 중 부처님오신날 다음으로 큰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도재일은 그 의미에 있어 부처님오신날보다 더욱 중요하다. 범인이었던 싯다르타가 부와 명예를 뒤로한 채 출가한 후 6년간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된 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만 중생을 위해 진리를 설한 일은 바로 성도에서 비롯됐다.

이 시기 전국 사찰들은 전국 사찰들이 성도일을 맞아 철야 정진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과 법회를 봉행한다. 새벽별을 보며 정각(正覺)을 이룬 부처님처럼 정진을 해보면 어떨까.

양산 통도사(주지 영배)는 성도재일을 맞아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참선 및 참회 절 정진 등 특별 철야 용맹정진을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시간은 1월 23일 오후 9시~24일 새벽 3시. 장소는 설법전이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관)는 성도재일에 맞춰 '참회정진 금강경 독송 법회'를 연다. 입재는 1월 18일 오전 10시이며, 회향일은 1월 24일이다. 법회는 경내 청풍루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수 있는 성도재일 21일 특별기도를 시작했다. 1월 3일부터 시작된 특별기도는 23일까지 오후 2시에 진행되며 108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1월 23일 오후 9시부터 24일 오전 4시까지는 자비수참기도를 법왕루서 철야 정진하며, 성도재일 당일인 24일 오전 11시에는 특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성도재일을 맞아 특별 철야 용맹정진을 대광명전에서 진행한다. 1월 23일 오후 9시~24일 새벽 5시.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부산 미타선원(주지 종호)는 성도재일을 맞아 기념법회를 1월 24일 오전 10시에 극락보전에서 봉행한다.

이밖에도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 불광사(회주 지홍)을 비롯한 전국 사찰들도 일제히 성도재을 맞아 철야정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불교계도 연합법회를 통해 성도재일 기념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제7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1월 21일 오후 2시 부산항 컨벤션센터 5층에서 개최한다.

법회는 식전 행사로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으로 시작해 도량청정결계, 육법공양, 승보공양, 종정 스님 법어가 이어진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08명의 스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공양을 올린다"며 "공양단 및 후원물 동참이 가능하다"며 후원 동참을 권유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 스키장 오가는 특별한 체험 어때?"

조계사, 1월 10일부터 겨울방학 특별템플스테이 개최

겨울방학을 맞아 스키 강습 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2차에 걸쳐 '눈꽃아이' 겨울방학 어린이 · 청소년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7세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조계사에서 2박을 머무르면서 사찰예절 익히기, 마음챙김명상, 소금만다라, 청계천 야경 포행, 마음거울 108배, 런닝맨 in 템플(보물찾기),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전통다도와 다식 만들기와 같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둘째날에는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으로 이동해 스키 강습과 스키, 눈썰매를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스키 연계 템플스테이는 조계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템플스테이다.



조계사 측은 "겨울에 '눈꽃'과 함께 '아이'가 천진하고, 순수하게 즐길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템플스테이 참가신청은 조계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jogyesa.templestay.com)에서 신청하거나 조계사 포교 · 템플국으로 전화하면 된다. (02)768-8523,8660

노덕현 기자

최면 영(靈)치유법 출간 기념 저자 직강

왜? 靈 治癒인가? 빙의 영은 生前의 심신질환을 환자에게 나타낸다.
빙의 영을 치유하면 병증은 사라진다.


상담학 박사 劉園 김종일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전공
• 한국최면심리상담센터 원장
• 더사랑심리상담센터 원장
• 한국최면심리상담협회 회장
• 최면심리상담사, 최면영치유전문가
• 심리상담사, 부부·가족치료사

초심자부터 각 영역별 전문가까지
최면영치유법 이론과 실기훈련을 통해 최면영치유사가 될 수 있다.

최면영치유사 전문가 과정 정규반 개강

○개강일 : 2018년 1월 22(월), 25일(목), 28일(일) 3개 정규반 선택
○기 간 : 1회 7시간(오전 11시~오후 7시) 총 8주간 집중교육
○수강료 : 별도 문의

최면영치유법 초청강의, 도제식 개인지도는 별도 문의 / 최면 빙의, 무병, 신병치유 별도 문의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3 그린빌딩 5층(한국최면심리상담센터, 더사랑심리상담센터)
전 화 : 02-6367-7088
계좌번호 : 농협 453012-56-056966 (예금주 : 김종일)

